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주제선정 내부 워크숍

2009. 3. 27(금) / 여성연합 회의실

정현백 이문숙 남윤인순 조영숙 김금옥 김정미 이구경숙 정윤희 참석

김연철 한겨레평화센터 소장 초청

1. 경과보고 : 정현백

- 워싱턴에서 2차 평화회의 개최(9월)
- 현재 미국에서 추진위 구성 활동 중(카린, 존, 서재정, 김창수, 정경란), 그러나 쉽지 않음. 미국 내 평화운동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동북아 평화문제에 큰 관심 없다.
-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2009년 회의 주제 선정이 어렵다. 오늘 워크숍 통해서 논의해보면 좋겠다. 정경란은 다자주의적 접근으로 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바라는 것을 하자는 의견. 1차 실행위에서는 keynote speech로 힐러리나 낸신, 웬디셔먼 등 초청해서 동북아 평화와 여성안보 정도로 얘기를 했다. 정경란씨는 이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체적인 현황을 듣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쟁점 화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
- = 남윤 : 6자 회담 파트너들의 위상이 다운되었다.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 6자 회담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2. 김연철 소장과의 대화록

(- : 김연철 소장 발언 / = : 실행위 발언)

- 지금부터 9월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다. 다음 주에 인공위성 쏘면 2-3주 시끄러울 것. 유엔 안보리 소집되어 논의될 것. 중국 러시아는 위성이기 때문에 평화적 권리에 관련, 제재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 한국 일본은 난리칠 것. 미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각기 다른 얘기들이 섞여 나온다. 원칙적으로 힐러리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대응의 형태는 2006년 안보리 결의안 1718 논의할 것. 내 생각에는 1-2주일 논란 후에 의장 성명 정도 나올 듯. 내용도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깔지만 중국이 얘기하는 6자회담 재개나 미사일 평화적 이용 등 애매하게 각기 다른 얘기들..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해결이 될 듯. 결국에는 그 국면에서 2006 북미 미사일 협상을 제기할 것인가? 북한이 3-4억 들여서 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2006 미사일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성 동아태 차관보(아이눔). 2006 웬디 셔먼이 당시 책임자였는데, 미국 입장에서 미사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듯.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하겠다는 내용. 중동에 수출하는 것을 북한이 포기하게 되면...

= 정 : 미국에서 식량 받는 것은 왜 거부했나?

- 앞으로.. 문제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북한은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모니터링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미. 서로간의 시각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론도 있고 의회도 있으니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6자 회담 재개문제이다. 아까 얘기한 것은 낙관적인 것이고, 오바마 미국의 고민은 3단계 핵폐기 협상, 미사일 협상도 경제적 상응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적 부담 크다. 경

수로 문제, 추가적 에너지 문제 등 이런 것은 한국 일본의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려다보니 동맹국의 협력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이명박 맘에 안 들어도 잘 구슬려야 하는 것이다.

6자 회담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자적 접근의 위상과 역할은 떨어질 수 있겠다. 썬 킴으로 위상이 떨어졌고, 북한도 김계관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다.

- 보스워스가 special representative로 되어 총괄하고 있다(정책조정 역할. 상근직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워싱턴의 관료정치를 리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걱정 많다. 차라리 웬디 셔먼이 워싱턴 안에서 인적 망을 갖고 조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 행정부가 아직 인선이 안 끝나서 리뷰가 안 되어 있고 미사일, 6자 회담, 경수로 어떻게 할지 아직 논의할 단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갖추어지면 보스워스가 중이 되면 몇 개의 양자회담들을 통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보스워스는 강석주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부시 때보다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스워스의 위상에 대해 우려를 했더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스탠포드 스트로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페리보다 권한이 더 크다. 페리가 대북정책 조정관할 때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아니다. SR은 힐러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한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활동 폭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권한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반기 되면 좀 풀리겠다. 폴린다라는 게, 이제부터는 핵 폐기협상인데 이게 복잡한 상응조치로 되어 있다. 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지원, 평화체제 3가지 상응조치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체제와 비교해보면 북한 핵능력이 비교할 정도로 늘어났다(플루토늄 40kg, 핵실험했고 이번에 성공할 것이다-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 = 정 : 4월 14일. NLL 평화공원 제안 토론회(2시, 참여연대). 이걸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린피스에도 제안하고. 인공위성 쏘고 나서 바로 토론회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NLL은 어떻게 되겠나?

- 논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를 만들자! 는 콘셉트.

- 이어서 얘기하면서 북미 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남북관계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NLL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촉즉발이다. 사격훈련도 실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발적 충돌의 사건들이 터지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방부도 어떻게 하면 붙을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건데, 보스워스가 6자 회담 최대 걸림돌은 한국이라고 했다. 미사일 쏘면 미국 내에서는 미사일 협상 하고 싶은데, 한국 일본이 안보리 어찌고저찌고 하면 골치 아픈 거다. 북미 대화를 하는데 NLL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골치 아픈 거다.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이 대부분 94년 경험자들인데 그때 김영삼 정부와의 엇박자 경험이 있는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스워스는 KEDO 안에서 지긋지긋하게 엄청 고생한 사람이다. 미국이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충돌생기면 북미대화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그 전에 6자 회담 진행되면 제일 좋고, 9월내에는 북미 대화 있을 것인데, 의제가 큰 의제가 있는 거다.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큰 기둥들. 6자 회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워킹 그룹이

있다. 한국 신문에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잘 안 쓰지만 동북아 평화협력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다(두 달 전에, 러시아). 최근에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워킹그룹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는 의제는 마이너한 부분이다. 해상에서의 조난이 일어났을 때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갓출 거냐. 해양 환경관련해서... 주로 이런 부분들이다. 민감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현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단 클린턴이 동아시아 순방하기 직전에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얘기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체로 보면 의제들은 북미 관계 정상화, 에너지 경제지원(경수로 의제),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들이 큰 의제이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에서 아젠다를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할까는 잘 모르겠다.

하나는 정치/군사, 또 하나는 경제. 경제 부분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논의한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에너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치/군사 분야로는 평화체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간 다자간 안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포커스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이 회의를 앞으로 20년 하겠다 하면, “군축”으로 잡으면 좋겠다. 너무 구체적으로 잡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잡으면 좋겠다. 주제 자체를 포커싱하면 좋겠다.

= 정 : 비핵화는 어떨까요? 한반도 비핵화.

- 비핵지대화 문제이다. 너무 벽찬 주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인데, 일본의 평화 운동가들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말하는데, 예전보다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쉽진 않다.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들고 나고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통과 자체를 금지시키면 군사전략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이상이다.

= 정 : 미국을 로비하는 것이 포커스인데, 정경란씨도 만나면서 부담스러운 것은 동북아 평화 관련한 미국 단체나 의원들이 별로 없다. 대중운동으로 조금 알리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하려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미국 여성들이 아주 보편적 주제로 해야 미국에 가서 행사를 하는 의미가 있고 반향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건 동북아 비핵지대화건.. 이건 우리의 이슈를 갖고 가서 알리는 것이므로 미국 내 여성들이 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 있다.

- 제도화 부분 중요한 제기다. 왜 유럽같은 OEC 제도가 동북아에는 없는지? 헬싱키 프로세스. 체제 인정, 경제 지원, 인권문제들이 모두 들어있다.

- 인도적 지원. 식상한 아이템이다. 안 식상하게 만들 방법 있을까?

= 정 : 정경란씨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얘기하는데, 이걸 제도화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될까? 매년 이걸 체크하고 입장문서를 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비핵지대화는 동북아까지 포함되게 하려면 러시아 일본 이해관계 약하고, 중국이 걸리는 문제 있다. 어제 참여연대 박정은씨가 미사일 발사하면 PSI 들어가겠다고 성명서낼 때, 참여연대 댓글이 반반이라고 하더라. 국민들의 정서가 찬반이 반반이다. 핵문제는 여성 쪽에서 띄우기엔 지뢰밭이다.

주제와 관련 없이 질문 하나 하겠다. 미국은 경제적 상응조치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는데, 남

북관계 안 풀리면 어렵다는 얘기 아니냐?

- 그게 바로 94년의 악몽이다. 제네바 합의했는데, 90년대 후반에 경수로 첫 삽 뚫었는데 로형 등등 논의하다가 클린턴 정부 끝난 것이다.

= 조영숙 : 영양가 있는 행사로서의 의미성을 잡아내기 위한 워크숍인데 9월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이 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어떤 주목을 얻는다거나 하기 힘든 상황에서, 거꾸로 이벤트를 재미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 아젠다도, 아이템도 마땅치 않다면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한반도 평화지수를 해본다거나... 한반도 평화시계같은 것은 6개국에 두고, 동시에 평화시계를 시작하는 형태 같은 것.

= 정 : 한반도 평화시계도 너무 한반도 문제이다. 인도적 지원을 하위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자적 접근을 6개국이 하면서 미국에 있는 korean american 여성들을 묶어서 가끔씩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national press center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어떨까? 기자회견할 때 한반도 평화시계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 조 : 전혀 attention이 안 된다.

= 정 : 뭘 해도 북한 인권만큼 주목은 안 된다. 시민평화포럼에서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북한 인권문제를 하려고 한다.

= 남 : 이 상태로 가면 미사일 끝나고도 많은 갈등과 충돌 있을 거라는 예상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군축,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포커싱을 뒤편 하지 않나? 제도화는 이 주제의 과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 정 : 전쟁은 안 되지만 지금이 전쟁 일보 직전이나? 정경란이 군축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 부녀연합을 불러내기 위해서. 부녀연합이 오지 않으면 영양가 없다.

= 김정수 : 부녀연합이 무슨 영양가 있냐?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평화운동을 하겠냐? 평화운동을 해야 하는 곳은 한국이다. 미국이 아니다. 왜 돈 쓰고 가냐?

= 이문숙 : 94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 한반도의 지지부진함. 이걸 여성들이 각성시키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군축' 이거 밖에 없는데, 중국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주목할 게 그거 밖에 없다. 6자 틀을 유지하면서 갈 것은 또 반복되는, 구태하게 정치논리로 반복되는 한반도, 동북아 상황에 대해 여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해하고 뭐가 해보려고 한다. 정서에 호소한다고 할까? 끝나지 않는 비폭력 상태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군축이다.

= 조 : 다자간 안보라는 프레임을 내놓을 수 있냐? 지금은 back 된 상태에서 내놓을 카드를 얘기해야 한다.

- 군축 하면 통상적으로 무기를 줄이겠다 이 전에 전 단계가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다.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이다. CTR(상호 위협 감소).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핵무기하고 핵시설 경제시설로 바꿨다. 원자력 발전소 직업훈련 등. 그 마을의 새로운 평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

6자 회담에서 연변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를 연구하고 있다. 군축이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법에도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참관 등 수십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행사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목받으려면 울브라이트 초청하면 되지 않나?

= 정 : 돈을 많이 줘야 해서. 그래서 웬디 서먼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수씨 얘기가 타당하긴 한데, 작년에는 국회의원 포함시킬 거냐, 보수 넣을 거냐에 지속적 논란이다. 군축으로 가는 것은 지속적 이슈 파이팅 부분이고, 보수 포함하는 것은 네트워킹 차원에서 하는 거다.

지난번에 힐러리 왔을 때 참여연대가 미 대사관 쪽 만났는데, 대사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국민들이 MB를 가장 잘 평가하는 부분이 남북관계부분이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사실은 남한 정부가 중국 등을 통해서 대화 통로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 한편으로는 청와대 수석 중에서 북이 곧 망할 건데 왜 그러냐는 분위기도 강하다고 한다.

= 김 : 9월 워싱턴에서 하는 것은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 이 : 여성주의와 군사문화.. 오래 해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세련되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 남 : 최근에 이 운동이 너무 안 일고 있다.

= 정 : 미사일 쏘면 각 단체가 성명서 내야 한다. 북도 남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경제협력과 평화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거다. 워싱턴에서 할 때는 좀 더 나간 이슈를 갖고 하면 좋겠다.

= 조 : 다른 이슈가 있겠냐?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요청할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하면서 대안적 제시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 정 : 둘 다 해야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1단계를 제안하고, 각국마다 진행상황 시계를 놓고 계속 나가자.

= 남 : 평화시계를 하려면 구체적 일정이 나와야 한다.

= 이 : 마이너한 이슈에 대해 중국 러시아 관심 있다고 하는데, 마이너 이슈와 메이저 이슈와의 연계 있나? 6자 회담은 사회적 이슈 다루는 곳이 아닌데...

- 황사문제도 있다. 워킹그룹에서 별도 논의 이슈 빼도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다. 6개국이 현재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 국경분쟁, 영토분쟁을 화두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이런 이슈만 남는 거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NEACD : 1.5 트랙. 연구자 정부 모두 참여. 매년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열린다) 하나 마나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지역에서 지역의 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거다. 다른 지역은 모두 있는데 동북아만 없다. 그만큼 문제 있다는 반증.

- 김정수 : 동북아 안보협력 얘기하려면 동맹을 얘기 안할 수 없는 거다. 비판을 얘기하고, 대안 제시는 유럽의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좋겠다. 거기에 여성 주의적 관점이 그동안 연구된 것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거품을 하나 끌어들이는 게 이벤트다. 다른 게 없다. 아주 오래된, 지겨운 얘기들을 아주 정통한 접근법으로 한번 해서 historical research를 해서 하나 만들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와 동북아 평화를 접목시키면 좋겠다.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평화문제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되는 한 지점이 동북아, 한반도일 수 있는데 제도 체인지 속에서 동북아 평화문제를 여성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제시하면 좋겠다.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방비를 얼마나 더 쓰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좋겠다. 결국은 군축의 문제인데, 어떻게 naming 하느냐 문제인데, 이런 접근이 좋다고 본다.

- = 정 : WILPF, AFSC도 약하고 해서.. 실질적 도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우리가 하더라도 월프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도 좋겠다.
- 문화적 방식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평화 쪽에서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많다. 멤버 중에서도 문화인(영화감독, 가수 등)과 같이 하는 게 좋다. 똑같은 얘기를 소프트하게 하는 것 중요하다.
- = 정 : 핑크코드는 부탁하면 무지하게 그로테스크하게 준비 잘 할 것이다.
- = 이 :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 동북아 냉전문화. 성공회대에서도 많이 연구하는 것 같다. 일상에서의 냉전문화 탈피해서 탈냉전으로 가자는 것.
- = 정 :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좋겠다. 역사 고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앞에 틀어주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좋겠다.
- = 조 : 나이베리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있다. 여성들이 어떻게 분쟁에서 여성 대통령의 탄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한국여성을 historical research로 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 = 이구 : 미국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한반도를 모른다. 미국 사회에 한반도의 문제를 알려져 관심을 갖게 하고 작은 참여라도 하게라도 하면 성공이겠다.
- = 김경미 : 여성 6자회담의 의미에 맞게, 다른 국제회의에서 알 수 없는 것 등의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여 젊은 친구들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국내에서 인턴들 모집해서 같이 미국 가도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서도 인턴십 하고...
- = 조 : 그건 인력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림은 좋은데 우리가 하기에 한계가 있다.

3. 정리

-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이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 어차피 회의 주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나? 이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이다. 이런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한다.
- 다자적 접근의 어려움, 민감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무난한 부분을 다룰 때이다. 아젠다를 특화하는 것이 회의를 지속화하는 지름길이다. 이벤트와 역사 자료집 발간하자. 따라서, 이슈는 **‘동북아(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로 하자. 논의를 통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평화체제 실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적 action plan(평화시계 등)까지 도출하면 좋겠다. 9월 회의에서 6개국 참가자들과 내부 토론을 거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 서해 NLL 평화공원, 헬싱키 프로세스 참조 등
- 영상 등 활용해서 동북아(한반도) 지역 긴장과 갈등의 역사적 배경 설명, 세계위기와 동북아 평화 결부시키길 희망

-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왜 이 주제를 선정했나?'와 진행방식, 사례 등 첨언하여 : 정현백 historical background 작성해서 서로 회람해서 정하기로 하다.
 - 김경미 : 동북아 평화체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상 있으면 좋겠다. 은하철도 999, 실 크로드 같은 이미지에 대한 new idea가 있으면 좋겠다. 기업인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 안에서 젊은이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공모전 같은 것도 해보면 좋겠다. 다른 국제회의에서 못해본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을 김경미씨가 기획안 작성, 추후 업무 추진